

정약용의 강역 및 일본 관련 인식에 대한 비판

정태상
(독도연구포럼)

<목차>

- I. 서론
- II. 천주교 배교 등에서 나타난 면모
- III. 정약용의 일본론에 대한 비판
- IV. 정약용의 요동론과 관련한 비판
 - 1. 정약용의 요동론
 - 2. 정약용의 발해 세자 자칭 견해에 대한 비판
 - 3. 정약용의 철령위 강원도설에 대한 비판
- V. 결론

【연구요약】

정약용은 일본의 침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내용의 일본론을 2편이나 썼는데,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의 사후 40년경 부터 있는 일본의 침략과 국권피탈이라는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요동론에서 정약용은 ‘요동을 수복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무력을 숭상하지 않는 나라로서 요동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해로움이 크다’ 고 하였다. 이러한 요동론에서의 정약용의 인식은 구체화되어 『아방강역고』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발해멸망후 고려로 넘어온 발해 세자 자칭설과, 고려말 명나라 철령위 강원도설이다.

발해 멸망후 세자가 수만 호를 거느리고 고려로 넘어왔다는 것은 정사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대광현이 발해세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을 달아 발해세자 자칭설의 진원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중국 문헌과 대조해 보면 고려말 철령위 문제는, 강원도의 철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의 철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시 국경도 요동이었던 근거 자료가 적잖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강원도의 철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오늘날 역사 교과서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주제어】 정약용, 대광현, 철령위, 요동론, 일본론

I. 서론

정약용은 조선 후기, 유학자이자 실학자로서 『경세유표』, 『흙흙신서』, 『목민심서』 등을 저술하였으며, 실학의 집대성자이자 개혁사상가로 평가되는 학자이다. 청년기에 접했던 천주교로 인해 오랜기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이 유배기간 동안 더욱 학문에 매진하여 500여권에 이르는 여러 분야에 걸친 많은 저술을 남겼고, 이 저술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실학을 집대성한 대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500여권에 이르는 많은 저술을 남겼다는 것은 박학다식함과 뛰어난 천재성을 입증하는 것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많은 저술을 했다는 것은 저작물 하나하나에 집중을 못한 것으로 추정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에 관하여는 칭송 일변도이고, 비판적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정약용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여론의 질타를 받을 우려마저 있다. 단편적으로 정약용에 대해 비판한 칼럼이나 논문도 적지 않으나, 대세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석우는 정약용의 천주교 배교와 수사 조력에 관해 비판적 연구를 했으며, 김상홍은 정약용의 일본론을 중심으로, 일본의 호전성과 침략성을 간과했음을 지적하였다. 정태상은 철령위와 관련하여,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였다.¹⁾ 그러나 어느 것이든 정약용에 대한 단편적인 비판에 그치고 있는 점에서 아쉽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적인 면모부터 정약용의 영토 문제에 대한 주장에 까지 범위를 넓혀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약용의 일본론과 요동론에서 나타난 원론적인 문제점과, 더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고려초 발해세자 귀부(歸附)와 관련하여, 그리고 고려말 철령위문제에 관한 주장에서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한중 관계에까지 미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도 살펴 보기로 한다. 그러나 본 논문 역시 정약용의 방대한 저술중의 일부에 근거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II. 천주교 배교 등에서 나타난 면모

1. 정약용의 천주교 배교

1897년 정약용은 국왕인 정조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천주교와의 관계에 대해 청년기에 천주교에 빠졌으나, 배교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승지 정약용(丁若鏞)이 상소하기를,

“신은 이른바 서양의 사설(邪說)에 대하여 일찍이 그 책을 보았으며, 일찍이 좋아하여 사모하였고, 일찍이 이것을 거론하며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그 본원(本

1) 최석우, 「II. 天主教勢力의 擴大」, 『한국사 15 민중의 항거』, 국사편찬위원회(1983), 153-285쪽.; 김상홍, 「다산(茶山)의 일본(日本) 인식(認識)」, 『東洋學』 46(2009), 65-84쪽.; 정태상, 「실학자와 대일 항쟁기 일본학자의 철령위 인식」, 『간도학보』 2.2(2019), 83-113쪽.

源)의 마음 바탕이 마치 기름이 번져 물이 더러워지고, 뿌리를 굳게 내리고 가지가 울창한 것처럼 되었는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 그런데 신이 무지몽매하여 미혹되었으니, 이는 모두 어린 나이에 고루하고 식견이 얕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몸을 어루만지며 부끄러워하고 후회한들 어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처음 사학에 물든 것은 어린아이가 장난치는 것과 같았는데 지식이 조금 쌓이게 되어서는 곧 원수처럼 여겼으니, 아는 것이 명확해지고 분별하는 것이 더욱 엄해져서 심장을 쪼개고 창자 속을 뒤져도 실로 남은 찌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 는 군부(君父)에게 의심을 받고 아래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처세(處世)를 한번 잘못하여 만사(萬事)가 와해되었으니, 산들 무엇을 하겠으며 죽은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의 직임을 체차하신 다음 내쫓아 주소서.”²⁾

정약용은 심장을 쪼개고 창자 속을 뒤져도 실로 남은 찌꺼기가 없다고 하면서 배교했음을 강조하였다. 이 상소문에는 선비의 고매한 기질도, 소신있는 모습도 찾을 수 없다. 배교했으니까, 국왕인 정조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양새다.

그 후 1801년 신유박해 당시에 정약용은 단순히 배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에 적극 조력하였다.

2월 26일 서소문 밖에서 처참(處斬)되니 그때 그의 나이 42세였다. 정약종(丁若鍾)은 조선천주교회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의 하나요. 가장 위대한 순교자 중의 하나이다. ...

정가(丁家)의 동기 중에서 다만 약종(若鍾)만이 순교의 영광을 차지했을 뿐 약전(若鎭)·약용(若鏞)은 이번에도 비굴하게 배교(背敎)하였다. 약용은 비단 배교에 그칠 뿐 아니라 동교도(同教徒)를 고발했으며 옥사(獄事)의 의논의 상대가 되어 특별 대우마저 받았다. 천주교도의 소굴을 철저히 조사해 내는 방략으로서 최창현(崔昌賢)이나 황사영(黃嗣永) 같은 무리는 아무리 날마다 형벌을 하여도 결코 실토하지 않을 것이니 그 노속(奴屬)과 학동(學童)을 불러다가 물으면 그 단서를 얻을 것이라고 제안한 것이 바로 정약용이었다.³⁾

배교 여부에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배교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형인 정약종을 비롯해 많은 천주교 교도들이 배교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택했는데, 정약용은 배교했을 뿐만아니라 같은 교도를 고발하고 수사에 조력하기까지 한 것은 지조있는 대학자로서의 면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노비제에 관한 정약용의 주장

2) 『정조실록』 정조 21년 정사(1797) 6월 21일

3) 최석우, 「Ⅱ. 天主教勢力의 擴大」, 『한국사 15 민중의 항거』, 국사편찬위원회(1983), 248쪽.; 김경자, 「1801년(순조 1) ‘辛酉獄事’의 시작과 변화 樣相 - 李家煥·李基讓 추국 사건과 周文謨 神父 추국 관련 『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 」, 『法史學研究』 67(2023), 104-105쪽.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는 영조때의 노비종모법(1731년)으로 노비의 숫자를 줄여줄게 한 개혁을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오히려 사실상 그 이전의 부모 중 한 사람이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一賤則賤)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대개 노비법(奴婢法)이 변한 뒤로 민속(民俗)이 크게 쇠하였으니 국가의 이익이 아니다.

옹정(雍正) 신해년(1731)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노(私奴)의 양처(良妻) 소생(所生)은 모두 어미를 따라 양민이 되게 하니, 이때부터 위는 약해지고 아래가 강해져서 기강이 무너지고 민심이 흩어져 통솔할 수 없게 되었다. 시험 삼아 그중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말해 보겠다.

만력(萬曆) 임진년(1592) 난리 때에는 남방에서 창의(倡義)한 사람들이 모두 집안의 종(家僮) 수백 명으로 군대를 편성(編成)했는데, 가경(嘉慶) 임신년(1812) 난리(西賊) 때에는 고가(故家) 명족(名族)들이 창의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한 명의 종도 구하기 어려웠으니,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대세가 완전히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에서 믿을 곳은 사족(士族)뿐인데, 그들의 세를 잃는 것이 이와 같으니, 만약 위급한 일이 생겨 백성들이 모여 난을 일으킨다면 누가 그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 이를 가지고 본다면 노비법은 잘 변한 것이 아니다.⁴⁾

그러면서도, 같은 시기에 쓴 『경세유표』에서는 영조때의 노비제 개혁을 아주 잘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생각건대, 우리 효종 대왕은 공법(貢法)을 고쳐서 대동법(大同法)으로 하였고, 또 우리 영조대왕은 노비법(奴婢法)과 군포법(軍布法)을 고치고, 한림전법(翰林薦法)도 고쳤다. 이것은 모두 천리(天里)에 합당하고 인정에 화협(和協)하여, 사시(四時)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 그때 회의하던 신하들의 발언이 뜰에 가득했고, 기세를 올려 힘껏 간하여 임금의 소매를 잡아끌고 대궐 난간을 부러뜨리던 옛사람의 일을 스스로 본뜨고자 한 자(者)가 있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법을 시행한 지 수백 년 후에 낙(樂)을 누리고 덕(德)을 받아 비로소 백성의 뜻이 조금 안정되었다. 만약 효종·영조 두 임금이 근거없는 논의에 의혹되어서, 시일만 보내고 끝내 고치지 않았더라면 그 법의 이해득실은 마침내 천고

4) 蓋自奴婢法變之後。民俗大渝。非國家之利也。雍正辛亥以後。凡私奴良妻所生。悉皆從良。自此以後。上弱下強。紀綱陵夷。民志以散。不相統領。試以著顯者言之。萬曆壬辰之難。南方倡義之家。皆以家僮數百。編爲卒伍。嘉慶壬申之難。西賊也。故家名族。相與議事。而一家一僮。亦且難得。即此一事。其大勢之全變。可知也。國家所倚者士族。而其無權失勢如此。脫有緩急。小民將相聚以爲亂。而誰能禁之。由是觀之。奴婢之法。未善變也。(『목민심서』 예전(禮典) 제5조 변등(辨等))

(千古)에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⁵⁾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노비제 개혁의 반대편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실학의 집대성자로서, 정약용의 개혁적, 진보적, 근대적 면모와는 맞지 않는다. 더구나 이와는 반대로 『경세유표』에서 영조때의 노비법을 고친 것을 칭송한 것은 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주장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호씨민과 정약용의 관계에 관한 논란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베트남에서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의 애독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목민심서』가 호찌민 애독서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하여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프랑스로부터 베트남을 해방시킨 호찌민(胡志明) 前 베트남 국가주석의 유품을 모은 호찌민박물관과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집무실에는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호찌민박물관의 웬 티 평 관장은 9일 오전 박석무(朴錫武) 단국대 이사장 겸 다산연구소 이사장 등 한국방문단과 만난 자리에서 "호찌민박물관에는 고인과 관련된 유품 12만여 점이 소장돼 있지만 목민심서가 유품 목록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목민심서 소장 사실을 사실상 부인했다고 배석했던 한 인사가 밝혔다.⁶⁾

이 해프닝이 시사하는 바는 정약용에 관하여 그 품성과 식견에 관해 과대평가가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약용이 학문적인 비판으로 부터도 성역화되고 있다면, 정약용의 사사로운 의견이 곧 역사적인 진실로 취급될 우려가 있다.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약용의 학술적인 오류들이 자유로운 비판을 피해가고 진실로 취급되는 것은 학술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500권 이상의 많은 책을 썼다는 것은 그 저자의 품성과 식견을 높이 평가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비판받을 부분이 그 만큼 더 많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정약용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 만으로도 뭔가 현학적인 것으로 보이고, 정약용에 대한 비판은 반 지성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기이한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洪唯我。孝宗大王。改貢法爲大同。亦唯我。英宗大王。改奴婢法。改軍布法。改翰林薦法。斯皆合天理而協人情。如四時之不能不變。然而當時集議之臣。發言盈庭。盛氣力諫。至有以牽裾折檻自居者。及行之數百年。享其樂。受其賜而後。民志少定。若使二祖。惑於浮議。荏苒而莫之改。則其利害得失。終亦不自於千古矣。(『경세유표』 방례초본 인(邦禮艸本引))

6) 연합뉴스 2006-01-09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 "호찌민박물관과 집무실에는 목민심서가 없다."

III. 정약용의 일본론에 대한 비판

1. 역사왜곡

정약용은 ‘일본론’이란 제목의 글을 2편이나 썼다. 일본론1과 일본론2의 2편 모두가 일본의 침략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단언하는 내용이다.

일본론 1

지금은 일본(日本)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이른바 고학 선생(古學先生) 이등(伊藤)씨가 지은 글과 적선생(荻先生), 태재 순(太宰純) 등이 논한 경의(經義)를 읽어보니 모두 찬연한 문(文)으로 쓰였다. 이 때문에 지금은 일본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음을 알겠다. ...

문(文)이 승하면 무사(武事)를 힘쓰지 못하기 때문에 망령되이 이익을 노려 움직이지 않는 법이다. 위에 열거한 몇 사람들이 경의(經義)와 예의(禮義)를 말한 것이 이러니 그 나라(일본)는 반드시 예의를 숭상하고 나라의 원대한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은 일본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⁷⁾

정약용은 일본론1에서 일본유학자의 글을 보니 문(文)이 무(武)보다 성하고 예의를 알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다고 된다고 하였다. 일본의 호전성과 침략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⁸⁾

일본론2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5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일본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문하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일본론 2...

대저 국력(國力)의 허실(虛實)과 무비(武備)의 소밀(疏密)을 살펴 승패(勝敗)의 형세를 헤아린 다음 도모해 왔다면, 저들이 이미 백 번 왔을 것이고 우리는 이미 백 번 패하여 씨도 없어졌을 것이다. 어떻게 지금까지 무사히 편안할 수 있겠는가.⁹⁾

7) 日本論一
日本今無憂也。余讀其所謂古學先生伊藤氏所爲文及荻先生太宰純等所論經義。皆燦然以文。由是知日本今無憂也。... 文勝者。武事不競。不妄動以規利。彼數子者。其談經說禮如此。其國必有崇禮義而慮久遠者。故曰日本今無憂也。(『다산시문집』 제12권 논(論))

8) 김상홍, 「다산(茶山)의 일본(日本) 인식(認識)」, 『東洋學』 46(2009), 82쪽.

9) 日本論 二
平秀吉動百萬之衆。竭十州之力。再舉大事。一蹶不還。國隨以亡。百姓至今怨之。其不宜蹈轍審矣。此日本之無可憂一也。嶺南歲輸米數萬斛。以活一州之命。今雖大行劫掠。必不能當此米之利。而盟約必敗。其不欲生釁審矣。此日本之無可憂二也。清人以我邦爲左臂。而我之北界。又與其根本之地。逼近而相附。清人決不使慄悍習兵之虜。據其左臂。日本之知得之而不能有之也審矣。此日本之無可憂三也。日本舊未統合諸洲。亡賴之徒。各以其意治兵行劫。故羅麗之際。爲患頻數。今一島一嶼。莫不

정약용이 일본의 침략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5개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풍신수길의 임진왜란을 일으켜 망했기 때문에, 그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해마다 영남에서 쌀 수만곡씩 일본으로 보내고 있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약탈하면 오히려 일본은 이득을 잃게 될 것이다.
셋째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다면 청나라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넷째로, 일본 중앙정부가 전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노략질하지 않을거다
다섯째, 일본이 청나라와 직접 교역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군이 조선에 와서 약탈하여 도적질했다는 오명을 얻지 않을 것이다.

실사구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순진무구한 탁상공론이다. 일본의 앞선 문물을 찬양 한다든가, 일본이 조선보다 앞서 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든가, 이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존망과 후세대 사람들의 생사와 관련 된 내용을 이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지? 이러한 글을 어떤 의도에서 2편이나 썼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실학자의 글 중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정약용의 일본론2라 할 수 있다. 사실상 비판할 필요도 없는 글이다. 왜냐하면 그후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일본론2에서, 정약용은 조목조목 5개 이유를 들면서 일본이 앞으로 절대 우리를 침범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했는데, 그가 죽은 지 40년 후에 운양호 사건(1875년)을 거쳐 강화도조약(1876)이 체결되고 70여년 후 조선은 일본에 의해 국권이 피탈당했다. 나라가 정식으로 패망하기 1개월 전에 정약용은 일본의 꼭두각시가 된 순종황제로 부터 큰 상을 받았다. 1910년(융희 4) 7월 18일, 정약용은 정헌대부 규장각 제학으로 추증되고 시호 '문도(文度)'가 내려졌던 것이다. 당시 내각총리대신은 이 완용이었다.

IV. 정약용의 요동론과 관련한 비판

1. 정약용의 요동론

統轄於國君，其不敢擅起戎禍審矣。此日本之無可憂四也。日本未通中國，凡中國之錦綉寶物，皆從我得之，又其所孤陋我人之詩文書畫，得之爲奇珍絕寶。今其舟航直通江・浙，不唯得中國之物而已，竝得其所以製造諸物之法，歸而自造而裕其用，又安肯劫掠鄰境，取竊盜之名，而僅得其粗劣苦惡之物哉？此日本之無可憂五也。若夫規國力之虛實，察武備之疎密，量度於勝敗之數，而爲之權而已，則彼已百來，我已百敗，無唯類矣。豈至今安然無事哉？(『다산시문집』 제12권 논(論))

정약용의 요동론은 『다산시문집』 제12권에 신라론, 고구려론, 백제론, 일본론1, 일본론2와 함께 실려있다. 요약하면, 힘없는 조선으로서는 요동을 차지해도 나라에 피해만 크다는 주장이다.

요동론(遼東論) ...

나는 요동을 수복하지 못한 것은 나라를 위해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요동은 중국과 오랑개가 왕래하는 요충지이다. 여진(女眞)은 요동을 거치지 않고는 중국에 갈 수 없고, 선비(鮮卑)와 거란(契丹)도 요동을 차지하지 못하면 적(敵)을 제어할 수 없고, 몽고(蒙古) 또한 요동을 거치지 않고는 여진과 통할 수가 없다.

진실로 성실하고 온순하여 무력(武力)을 숭상하지 않는 나라로서 요동을 차지하고 있게 되면 그 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요동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서로 화친한다면 사신의 접대에 드는 비용과 병정(兵丁)을 징발하여 부역시키는 일 때문에 온 나라의 힘이 고갈되어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서로 사이가 좋지 않게 된다면 사면에서 적의 침략을 받아 전쟁이 그칠 때가 없을 것이므로 온 나라의 힘이 고갈되어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0)

정약용의 요동론은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요동수복을 포기하고 위화도 회군 세력이 세운 조선왕조 초기의 역사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륙으로 웅비하는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은 찾을 수 없다. 우리 역사를 한반도 안으로 축소시키려는 이른 바 반도사관에 가깝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며,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다.

일본은 앞으로 조선을 침략해 오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목 조목 주장한 일본론과 연계시켜 본다면, 사대교린주의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요동론의 말미에는 요동을 차지할 수 있다면 통쾌한 일이라고 했지만, 요동론의 전반부에서 요동을 차지하지 않는게 더 낫다는 주장과 비교해보면 그 주장의 강도는 훨씬 더 약하다.

그러나 진실로 나라가 부유하고 군이 강성하여 하루아침에 천하를 다룰 뜻이 있어 한 걸음이라도 중원(中原)을 엿보려 할 경우에는 먼저 요동(遼東)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쨌든 서쪽으로 요동을 획득하고 동쪽으로 여진(女眞)을 평정, 북쪽으로는 국경을 넓혀 위로 흑룡강(黑龍江)의 근원까지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몽고와 버틴다면, 충분히 대국이 될 수 있으니, 이 또한 하나의 통쾌한 일이라 하겠다.11)

10) 遼東論...臣謂遼東之不復。國之幸也。遼東者。華夷往來之衝也。女眞不踰遼東。不達中國。鮮卑契丹不得遼東。不能控制其敵。蒙古不過遼東。不通女眞。苟以愿順不武之邦。而擁有遼東。其害可勝言哉。和附則使价供億之費。兵丁調助之役。竭一國之力而不能支也。失和則四面受敵而兵革無已時。竭一國之力而不能支也。(『다산시문집』 제12권 논(論))

11) 雖然苟使國富而兵強。一朝有抗衡天下之志。而欲窺中原一步者。非先得遼東。不可爲也。不然西得遼東。東平女眞。北拓境上。窮黑龍之源。而右與蒙古抗。斯足爲大國。亦一快也。(『다산시문집』 제12권 논(論))

정약용의 일본론과 요동론이 원론적인 것이라면,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는 각론적인 것이다. 요동론에서 보이는 정약용의 요동 땅에 대한 소극적 인식은 『아방강역고』에서 각론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발해 멸망후 고려로 넘어 온 대광현 ‘발해세자 자칭설’과, 고려말 명나라 ‘철령위 강원도설’이다. 발해 멸망후 세자가 수만 호를 거느리고 고려로 넘어왔다는 것은 정사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대광현이 발해세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족을 달아 발해 세자 자칭설의 진원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중국 문헌과 대조해 보면, 고려말 철령위 문제는 강원도의 철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동의 철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시 국경도 요동이었던 근거 자료가 적잖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이를 간과하고 강원도의 철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오늘날 역사 교과서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2. 정약용의 발해세자 자칭 견해에 대한 비판

고려초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후 발해의 세자 대광현을 비롯한 수만호의 발해인들이 고려로 넘어 왔다. 이는 발해를 고려가 계승했다는 유력한 근거중의 하나가 된다. 즉, 발해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라는 것이다. 발해세자 대광현이 고려로 귀부했다는 사실은 정사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도 다섯차례나 기록되어 있다.

<표 1> 발해 멸망후 세자 및 수만호 귀부 여부

구분	수만명 or 수만호	세자 자칭여부
『고려사』 태조 17년(934년) 7월	세자가 수만명 인솔	자칭 아님
『고려사』 열전 최승로 상서	세자 등이 수만호 인솔	자칭 아님
『고려사』 연표 천수 8년(925년)	세자가 내투(來投)	자칭 아님
『고려사절요』 권1 태조 8년(925년) 12월	세자등이 수만호 인솔	자칭 아님
『고려사절요』 권2 성종 1년(981년) 6월 최승로 상서	세자등이 수만호 인솔	자칭 아님

이중에서도 태조 8년(925년) 12월의 『고려사절요』가 가장 자세한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려사절요』 권1 태조 8년(925년) 12월

12월, 거란이 발해(渤海)를 멸망시켰다...

그 세자(世子) 대광현(大光顯)과 장군(將軍) 신덕(申德), 예부경(禮部卿) 대화균(大和鈞), 군로사정(均老司政) 대원균(大元鈞), 공부경(工部卿) 대복모(大福謨), 좌우위장군(左右衛將軍) 대심리(大審理), 소장(小將) 모두간(冒豆干), 검교 개국남(檢校 開國男) 박어(朴漁), 공부경(工部卿) 오흥(吳興) 등 그 남은 무리들을 이끌고 전후로 도망쳐 온 자(來奔者)들이 수만호(戶)였다.

왕이 그들을 매우 후하게 대우하여, 대광현에게 ‘왕계(王繼)’라는 성과 이름을 내려주면서 그를 왕실의 적(籍)에 붙이고, 그 조상의 제사를 받들도록 허락하였다. 보좌하는 신료들에게도 모두 작위(爵位)를 내려주었다.¹²⁾

발해 세자 대광현이 대신들을 거느리고 고려로 귀부해 왔는데 전후로 수만호가 도망쳐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국내의 역사서에는 이와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발간 『한국사 4』에는 대광현이 ‘세자라고 칭’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¹³⁾ 같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대기』와¹⁴⁾ 한국학중앙연구원 발간 『한민족문화대백과』에는¹⁵⁾ 대광현이 ‘세자를 자칭’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¹⁶⁾ 대광현이 발해왕자라고 하는 기록도 여전히 많이 있다.

정사에는 5차례나 발해세자 대광현이 고려로 넘어온 것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는 다르게 알려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진원지는 정약용이 쓴 『아방강역고』의 발해속고(渤海續考)에 있다.

『고려사』에 이르기를, 태조 17년,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무리 수만(數萬)을 거느리고 내투(來投)해 왔다. 성명(姓名)을 하사하여 왕계(王繼)라 하고 종실(宗室)의 족보에 넣었다. 특별히 원보(元甫)로 임명하여【元甫 或 其子姪名】백주(白州)를 지키면서【今白川】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겨울에, 발해 진림 등 160여명이 내부(來附)하였다.

12) ○十二月。契丹滅渤海。... 其世子大光顯及將軍申德禮部卿大和鈞均老司政大元鈞工部卿大福謨左右衛將軍大審理小將冒豆干檢校開國男朴漁工部卿吳興等率其餘衆，前後來奔者數萬戶。王待之甚厚，賜光顯姓名王繼，附之宗籍，使奉其祀。僚佐，皆賜爵。(『고려사절요』 권1 태조 8년(925년) 12월)

13) 이용범, 「2. 高麗와 渤海」, 『한국사 4 고려귀족사회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1981), pp67-104 ‘세자라고 칭’ 77쪽, 96쪽
https://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oh_004_52com&fileName=oh_004.pdf&page=006

(2024.5.31. 검색)
1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대기』 고대 발해멸망, ‘발해 세자를 자칭한 대광현(大光顯)’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1009000&code=kc_age_10

(2024.5.31. 검색)
1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문화대백과』 ‘대광현’, ‘세자를 자칭’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34694&cid=46620&categoryId=46620>

(2024.5.31. 검색)
16)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의 『신편한국사』에는 ‘자칭’이라는 말이 없이 ‘발해 세자 大光顯’이라고 바르게 기술되어 있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10_0030_0020_0010
(2024.5.31. 검색)

생각건대, 이 세자가 대인선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혹 대인선의 동생이 왕으로 세워졌다가 다시 패하여 그 아들이 도망쳐 왔을 수 있다. 지금은 상세히 알 수 없다.¹⁷⁾

정약용은 태조 17년의 『고려사』를 인용하면서 근거제시 없이 ‘이 세자가 발해왕 대인선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案此云世子, 未必是謹讓之子)는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다. 정약용의 발해속고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발해 멸망후 대광현의 고려귀부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고문헌들에서 ‘발해 세자’가 귀부해 온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동사강목(東史綱目) 안정복(安鼎福), 성호사설(星湖僊說) 이익(李瀾), 성호전집(星湖全集) 이익(李瀾), 익재집(益齋集) 이세현(李齊賢), 임하필기(林下筆記) 이유원(李裕元), 치평요람(治平要覽) 정인지(鄭麟趾), 수산집(修山集) 이종휘(李種徽), 홍재전서(弘齋全書) 정조(正祖), 양와집(養窩集) 이세귀(李世龜), 소눌집(小訥集) 노상직(盧相稷), 대동지지(大東地志) 김정호(金正浩),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유형원(柳馨遠)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는 정약용 개인의 사족과 같은 의견이 마치 정사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그리고 다른 모든 학자들이 쓴 고문헌들을 능가하는 신뢰도를 가진, 근거있는 주장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칭 세자’에서 더욱 더 확대 재생산, 변질되어 ‘발해 왕자’가 귀부해 온 것으로도 왜곡되어 왔다.

발해 세자가 대신들을 거느리고 고려로 귀부해 왔다는 것은 발해를 고려가 계승했고 따라서 발해역사는 한국의 역사라는 유력한 근거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의 가벼운 의견을 맹신함으로 인해 자칭 발해역사가 우리역사라는 유력한 근거가 훼손될 우려마저 있다.

3. 정약용의 철령위 강원도설에 대한 비판

고려 말 1387년 12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고려와 명나라 간에 철령을 경계로 할 것을 통고하고, 명나라가 철령위를 설치하려고 하자, 고려에서는 철령이 고려 영토임을 주장하여, 명나라와 고려간에 철령위 문제가 발생하였다.

철령위 문제의 주된 쟁점은 이 철령이 압록강 이북 요동의 철령인가? 아니면 강원도 복단의 철령인가 하는 것이다. 고려말에 철령이라는 지명이 요동과 강원도 두 군데에 있었다는 것은 정약용도 인정한 바 있다. 중국 요동땅의 철령은 지금도 심양 북

17) 《高麗史》云：“太祖十七年，渤海國世子大光顯，率衆數萬 來投。賜姓名王繼，附之宗籍，特授元甫守白州；【今白川】以奉其祀。【元甫或其子姪名】冬，渤海陳林等一百六十人來附。” ○案此云世子，未必是謹讓之子。或是謹讓之弟，權立爲王，至是又敗，而其子來奔也。今不可詳。(정약용, 『여유당전서』, 我邦疆域考 其四, 渤海續考)

쪽에 대도시(철령시)를 이루고 있다. 강원도 복단의 철령고개도 그대로이다.

현재 국내 학계에서는 강원도 복단의 철령이라는 것이 정설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정약용도 『아방강역고』에서 다음과 같이 강원도 안변의 철령임을 주장했다.

대명 홍무 연간에(명태조 주원장때에) 지금의 (강원도 복단) ‘안변에 있는 철령이 북’에 철령위를 세우는 논의가 있었다. 고려에서 진결(陳乞)하여 중지하였다.¹⁸⁾

그런데, 『명사』(이원명전)에 의하면, 당시에 고려가 ‘요동의’ 문주, 고주, 화주, 정주가 고려영토이므로 철령에서 둔수(屯戍)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명나라에서 강하게 거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원명은 당시 명나라의 예부상서(외무장관)이었다.

이원명(李原名)의 자(字)는 자선(資善)으로 안주(安州) 사람이다. …

고려에서 상주하기를, ‘요동(遼東)의’ 문주(文州)·고주(高州)·화주(和州)·정주(定州)가 모두 그 나라(고려)의 옛 땅이니 철령(鐵嶺)에서 둔수(屯戍)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원명이 말하기를, “몇몇 주(州)는 모두 원의 판도(版圖)에 들어와서 요(遼)에 속하였으니 고려의 땅은 압록강을 경계로 합니다. 지금 철령에 이미 위(衛)를 두었으니 다시 진청(陳請)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명하여 그 나라에 분토(分土)를 지키며 혼단(釁端)을 일으키지 말라고 유시하게 하였다.¹⁹⁾

이는 당시에 논란이 된 철령이 강원도의 철령이 아니라 요동의 철령임을 입증하는 근거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요동의 문주, 고주, 화주 정주’와 ‘철령’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²⁰⁾

정약용은 안변의 철령이라고 주장하는데, 『명사』 이원명전에는 요동의 철령이라고 기록된 것이다. 명나라의 답신 내용도 고려가 요동의 철령 등을 고려영토라고 주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약용은 『명사』에 기록된 ‘요동’이라는 말을, 사가(史家)가 임의로 붙인 것이라 하여 무시하였다.²¹⁾

《명사·조선전》 홍무20년【신우 13년】 7월, 고려에서 아뢰기를 : “요동의 文、高、和、定 4주(州)는 모두 그 나라의 옛 땅이므로, 바로(就) 철령에서 둔수(屯守)하게

18) 大明洪武之年，議割今安邊之鐵嶺以北，立鐵嶺衛。高麗陳乞得寢。(정약용, 『여유당전서』, 我邦疆域考 其四, 渤海續考)

19) 李原名，字資善，安州人。… 高麗奏遼東文·高·和·定州皆其國舊壤，乞就鐵嶺屯戍。原名言，“數州皆入元版圖，屬於遼，高麗地以鴨綠江爲界。今鐵嶺已置衛，不宜復有陳請。”帝命諭其國守分土，無生釁。(『明史』卷136 列傳24 李原名)

20) 실제로 고려에서 요동의 철령을 요구했는지 강원도 철령에 대해서 요구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명나라에서 요동의 철령을 요구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21) 당시 명나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고려에서 요동땅을 요구한 것으로 간주하고, 거절한 것으로 보아서 ‘요동’이라는 글자는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또한 정약용은 『명사』 조선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나, 『명사』 조선전이 아니고 『명사』 이원명전이다.

할 것을 청한다”하였다. 【생각컨대, 원주(原奏)에는 필시 ‘遼東’ 2글자가 없었다. 이 2글자는 필시 사가(史家)가 더한 것이다.】²²⁾

이외에, 명태조 주원장이 ‘고려는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高麗舊以鴨綠江爲界)’고 말한 부분도 정약용은 간과했다. 이는 당시 문제가 된 철령이 강원도의 철령이 아니라 요동의 철령이라는 가장 유력 근거가 된다. 문제가 된 철령이 강원도의 철령이라면 명태조 주원장이 ‘고려 국경은 압록강까지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후 일제 강점기 초기 1910년대 일본 학자들이, 문제가 된 철령은 강원도의 철령이 아니라, 요동의 철령이라는 것을 밝혀냈다.²³⁾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두 연구자 모두 당초(1387년 12월)에 주원장이 설치하고자 한 철령위는 요동에 있었으며, 그 후(1388년 3월) 실제로 설치한 철령위도 요동에 있었다는 견해를 분명히 하였다.²⁴⁾



<그림 1> 철령위 위치에 관한 주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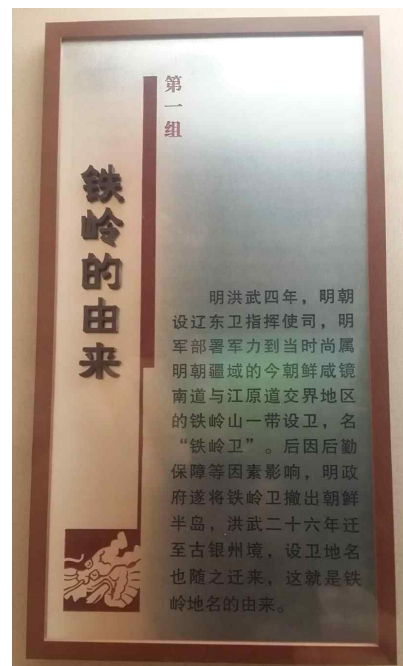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우리 학자들이 당시 요동의 철령은 고려영토가 맞다는 연구를 하지 않는데 언제까지나 일본 학자들이 대신 연구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후 철령위 문제는 조선사편수회에 의해 강원도 철령으로

22) 《明史·朝鮮傳》洪武二十年【辛酉十三年】七月，高麗奏：“遼東文、高、和、定四州皆其國舊壤，乞就鐵嶺屯守。”【案，原奏必無‘遼東’二字。此二字必史家所加】(정약용, 『여유당전서』, 我邦疆域考 其四, 渤海續考)
23) 津田左右吉, 「고려말에 있어서 압록강반의 영토」, 『조선역사지리』 제2권, 남만주철도주식회사 (1913).; 池內宏, 「高麗辛禔朝に於ける鐵嶺問題」, 『東洋學報』 8, 東洋協會調查部(1918).; 정태상, 「실학자와 대일항쟁기 일본학자의 철령위 인식」, 『간도학보』 2.2 (2019), 95-100쪽.
24) 정태상, 「실학자와 대일항쟁기 일본학자의 철령위 인식」, 『간도학보』 2.2(2019), 95-100쪽.

고착되고,²⁵⁾ 오늘날 중고 교과서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고려 말에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강원도에 철령위를 설치하여 국경으로 하고자 했는데, 고려에서 반발하자 요동에 철령위를 설치했다는 것이 현재에도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명태조 주원장은 애당초부터 요동에 철령위를 설치하려고 했고, 실제로 설치된 철령위도 요동에 위치했다.²⁶⁾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당시 강원도 복단에 철령위를 설치 했으며, 철령 이북은 명나라 땅이었고, 중국 철령시의 지명은 강원도 복단의 철령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림 2> 철령의 유래(遼寧省 铁岭市铁岭博物馆)

철령의유래

명 홍무4년(1371), 명나라(明朝)는 요동위지휘사(指揮使司)를 설치하여, 명군은 군력(軍力)을 당시 여진(屬屬) 명나라 강역인 지금의 조선 함경남도 와 강원도가 맞닿은 지구(地區)인 철령산 일대에 까지 배치하여 설위(設衛)하고 철령위(鐵嶺衛)

25) 정태상, 「실학자와 대일항쟁기 일본학자의 철령위 인식」, 『간도학보』 2.2(2019), 101-105쪽.
26) 정태상, 「명의 철령위와 고려말 국경의 재검토」, 『인문과학연구』 0.58(2018), pp200-203쪽.; 정태상, 「실학자와 대일항쟁기 일본학자의 철령위 인식」, 『간도학보』 2.2(2019), 111쪽.

라고 이름 붙였다.

그 후 병참지원(后勤) 보장 등 영향으로 인하여, 명나라 정부는 마침내 조선반도로부터 철령위를 철수하고자 하여, 홍무26년 옛날 은주(银州) 지역으로 옮겼다. 철령지명도 옮겨왔는데, 이것이 바로 철령지명의 유래이다.²⁷⁾

우리 한국이 ‘고려말에 명나라가 강원도 북단에 철령위를 설치하려고 했다’고 하는 역사 왜곡을 방치한 결과가 화근이 돼서, 중국은 한술 더 떠서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인 연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V. 결론

정약용은 천주교 배교과정에서 지조있는 선비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단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목민심서』에서 영조의 노비제개혁에 반대한 것은 개혁사상가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경세유표』에서는 영조의 노비제 개혁을 잘한 것으로 언급한 것은 주장하는 바가 일관성이 없어 혼란스럽게 한다.

일본의 침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2편의 일본론은 실사구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탁상공론이다. 그 후에 나타난 일본의 침략과 국권피탈이라는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정약용은 요동론에서 ‘요동을 수복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무(武)를 숭상하지 않는 나라로서 요동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해로움이 크다’ 고 하였다. 요동론은 현실적 일지는 몰라도 위화도회군으로 요동수복을 포기한 조선왕조 초기 문치주의의 틀을 벗어날 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 바 반도사관이라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요동론에서의 정약용의 인식이 각론화, 구체화되어 『아방강역고』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발해멸망후 고려로 넘어 온 발해 세자 자칭설과, 고려말 명나라 철령위 강원도설이다. 발해 멸망후 세자가 수만 호를 거느리고 고려로 넘어왔다는 것은 정사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대광현이 발해세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족을 달아 발해세자 자칭설의 진원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자칫하면 발해역사가 우리역사라는 유력한 근거중의 하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중국 문헌과 대조해 보면 고려말 철령위 문제는, 강원도의 철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동의 철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시 국경도 요동이었던 근거 자료가 적잖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강원도의 철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조선사편수회를 거쳐 오늘날 역사 교과서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현재 중국측에서는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27) 铁岭的由来明 洪武4年, 明朝 设 遼东卫指挥使司, 明军 部署军力 到 当时 尚属明朝 疆域的 今 朝鲜 咸镜南道 与 江垵道 交界地区的 铁岭山一带 设卫, 名 铁岭卫. 后 因 后勤保障 等 因素影响, 明政府 遂 将 铁岭卫撤出朝鲜半岛, 洪武26年迁至故银州境, 设卫地名也随之迁来, 这就是铁岭地名的由来(출처: 요녕성 철령시 철령박물관)

<참고문헌>

(단행본)

이덕일,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다산복스(2013)

조선사편수회(편), 『조선사』제3편 제7권, 조선총독부(1938).

(논문)

최석우, 「Ⅱ. 天主教勢力의 擴大」, 『한국사 15 민중의 항거』, 국사편찬위원회 (1983)

김상홍, 「다산(茶山)의 일본(日本) 인식(認識)」, 『東洋學』 46(2009)

정태상, 「실학자와 대일항쟁기 일본학자의 철령위 인식」, 『간도학보』 2.2(2019)

정태상, 「명의 철령위와 고려말 국경의 재검토」, 『인문과학연구』 0.58(2018)

김정자, 「1801년(순조 1) ‘辛酉獄事’의 시작과 변화 樣相 - 李家煥、李基讓 추국 사건과 周文謨 神父 추국 관련 『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 」, 『法史學研究』 67(2023)

池內宏, 「高麗辛禡朝に於ける鐵嶺問題」, 『東洋學報』8, 東洋協會調查部(1918)

津田左右吉, 「고려말에 있어서 압록강반의 영토」, 『조선역사지리』 제2권, 남만주 철도주식회사(1913)

【Abstract】

Criticism of Jeong Yak-yong's perception of territory and Japan

Chung, Taesang

(Dokdo Research Forum)

Jeong Yak-yong wrote two articles on Japan arguing that there was no need to worry about Japanese invasion, but the fact that these were just idle talk is proven by the Japanese invasion and fall of the country that began about 40 years after his death. .

Additionally, in his theory of Liaodong, Jeong Yak-yong said, 'It is fortunate that Liaodong was not restored,' and 'As a country that does not respect military force, occupying Liaodong would cause great harm.' Jeong Yak-yong's perception of this theory of Liaodong seems to have been crystallized and appeared in Abang Gangyeokgo.

Among them, the most representative ones are the theory that Daegwanghyeon came to Goryeo after the fall of Balhae and declared himself the crown prince of Balhae, and the theory that 'Cheollyeongwi was Gangwon-do' in the late Goryeo period.

Despite the fact that it is clearly recorded in the official history of Goryeo that the crown prince came to Goryeo with tens of thousands of households after the fall of Balhae, Jeong Yak-yong added that Daegwanghyeon may not be the crown prince of Balhae, becoming one of the epicenters of the theory of self-proclaimed crown prince of Balhae.

In addition, when contrasted with Chinese literature, the issue of Cheolryeongwi in the late Goryeo Dynasty does not refer to Cheolryeong in Gangwon-do, but to Cheolryeong in Liaodong, and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considerable evidence that the border at the time was also Liaodong, Jeong Yak-yong claims that it refers to Cheolryeong in Gangwon-do. As a result, it has been passed down to today's history textbooks.

Correcting distorted history and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conflict in advance is also necessary for long-term friendly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Keywords : Cheolryeongwi, Jeong Yak-yong, Balhae, Daegwanghyeon, Liaodong